

최첨단 폐수약품 개발에 주력

성우실업 (주)

환 경산업의 여러분야에서 각각 숨은 기업들이 있어 오염되어지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 성우실업을 꼽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우실업은 폐수처리용 약품판매회사로써 명실공히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84년에 성우실업(대표 김성훈)을 설립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고 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김성훈사장(37세)은 10여년 동안 이 업계에서 꾸준히 연구노력해 온 장본인, 대학시절 무역학을 전공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생물제를 수입해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약품판매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환경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현재는 전사지(도자기에 붙이는 종이)를 생산하는 자체 공장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과 국산(성우실업)으로 국내 유일하게 전문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약품판매회사로써 신뢰할 수 있는 터전을 사업 기반으로 다지고 있어

거래처마다 호응을 얻고 있는데 폐수약품은 한국 티타늄의 "POLY황산철"대리점, 고분자 응집제 "BOORIM FLOC" 한국 대리점과 고농도 중화제 I.C, 염화알루미늄, 변이 BACTERIA제제 "ACTIVE-BIO 등 폐수처리용 약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화학적처리 물리적처리, 생물학적처리 어떤 산업폐수에도 적용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김성훈사장은 "약품판매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각회사 폐수특성에 맞는 약품을 선정, 공급해서 폐수처리가 원활이되고 각 거래처의런닝COST가 절감되도록 하여야 하기때문에 우리회사는 실험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특이할만한 것은 전직원이 환경관리(수질) 1, 2급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몇년간의 연구노력으로 무기응집제를 자체에서 개발된 상태로 있어 앞으로는 판매회사에서 그치지않고 최첨단 폐수약품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